

힌두 탄트라(Piṭha)의 종류와 불교 탄트라적 수용

방정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수료)

국문요약

본고는 사이바 탄트라 문헌과 불교 탄트라 문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성소(Piṭha)의 명칭들이 각기 어떻게 전승되고 변용되어가는지를 문헌 비교와 사본 편집을 통해 살펴보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Śaiva Trika 체계에 속하는 주요 문헌 중에 하나인 Tantrasadbhāva 16장에서 열거되는 성소의 종류들이 거의 동일하게 불교 탄트라 문헌 중 Saṃvara 계열의 문헌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성소 개념의 전승 과정을 추적하고, 편집 문헌들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9권 (2011. 6) 219p~246p

www.kci.go.kr

주제어: 피타, 성소, 탄트라삿트브하바, 샤이바, 삼바라 문헌, 산스크리트
사본, 비판교정, 문헌학

I.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본고는 힌두 탄트라의 pīṭha라고 칭해지는 요기니(yoginī)의 성소의 개념과 종류를 통해서 이것이 힌두 탄트라와 후기 Vajrayāna의 문헌을 통해 어떻게 수용되어 변화 발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에 열거된 pīṭha의 명칭과 그 해석을 통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힌두 탄트라의 pīṭha의 종류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Vidyāpīṭha에 속하면서 후기 Yoginītantra 계열로 넘어가는 단계¹⁾에 있는 Śaiva Trika 체계의 문헌인 *Tantrasadbhāva* (이하 TaSa)와 Kaula의 서쪽 전승에 놓이는 *Kubjikamatatantra*(KuMa) 등에서 pīṭha의 종류가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Samvara 계열의 불교 탄트라에서 힌두 탄트라와 비교하여 그러한 Pīṭha의 리스트와 해석이 어떻게 수용,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힌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간 막연하게나마 그 동일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헌적 증거를 통해서 두 상이한 흐름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은 최근의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Trika 문헌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적인 예로, 본고에서 다룰 Samvaratantra의 초기 문헌인 *Cakrasa-*

1) Śaiva tantra 문헌군의 세부 범주에 관해서는 논의점이 많이 있지만, 선행 연구로는 Sanderson (1995) 등이 있다. Trika 문헌의 성격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Hatley(2007)를 참조.

mvaratantra(CaSa) 41장에서 다루지는 Piṭha 명칭들은 불교 탄트라 문헌들 자체에 기원하는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된 문헌들 중에서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한 전거는 바로 샤이바 탄트라 TaSa 16장에서 다루지고 있는 pīṭha의 종류에서이다. 또한 TaSa 자체만을 힌두 탄트라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Brahmayāmala*(BraYā)에서 언급하지 않는 자세한 Piṭha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고, 보다 후대 관련 문헌인 KuMa와는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TaSa 자체가 불교의 Samvara 문헌에 미쳤을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힌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 문헌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amvara문헌의 측면에서 보자면, CaSa의 내용은 간략하게 Piṭha의 범주를 언급하는 *Hevajratantra*(이후 HeTa)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CaSa 이후의 *Samvarodayatantra*(이후 SaUd) 등 후기 Samvara 문헌에서 그 변용 양상이 포착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샤이바 문헌과의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불교 내부에서 Piṭha 체계를 불교 철학 자체와 연결하여 어떻게 체계화 시키는지 문헌 비교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적용할 가장 주요한 방법은 사본 연구를 필두로 한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이 될 것이다. 본고는 Trika Śaiva의 중요 문헌인 *Tantrasadbhāva*의 제 16장 부분을 두 개의 사본을 이용한 필자의 사본 교정본을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비판 교정본이 이미 출판된 문헌의 경우 그 자체를 참고하되, 접근 가능한 산스크리트 사본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전승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 교정본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표기할 것

이다. 현재 탄트라 연구 분야는 현존하는 사본의 양과 보고된 카탈로그의 문헌 수에 비해 비판 교정본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미 편집본이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보고된 사본이 있는 경우, 전의 교정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고에서 다룬 문헌들은 사본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e-text의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원본 그대로의 필사본(diplomatic edition)이므로, 난독과 오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본을 통해 재검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샤이바 문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티벳역과 한역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 불교 탄트라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필요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II. Pīṭha 기원 신화와 불교 탄트라적 재해석

신들이 주하는 신성한 장소, 수행자의 앉는 곳 혹은 의자 등을 의미하는 pīṭha는 초기에 제의를 위해 쌓은 재단을 칭하기도 하는 개념이지만, 이후 여신, 특히 Yoginī와 연결된다. pīṭha 관련 기원신화를 볼 수 있는 초기 문헌을 꼽자면 물론 리그베다²⁾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시간이 지나 푸라나와 탄트라로 갈수록 에피소드 자체에 세부적인 변화를 겪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Sircar(2003)가 언급하는 것처럼, 초기 비아리안계열이던 Rudra-Śiva가 어떻게 아리안 판테온에 영입, 정착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R̥gveda*(X, 61,5-7); D.C Sircar Śakta pīṭhas, 1973 p.6; 리그베다 브라흐마나에서는 Rudra와 그의 부인이자 Prajāpati의 딸인 Ūṣas로 언급된다.

푸라나와 카브야 등에서 언급하는 신화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는 닥샤(Dakṣa)의 희생제의 신화와 연결된다. 사티(Satī)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Śiva)이 아버지인 Dakṣa의 희생제의에 초대받지 못하자, 이에 반발해 요가의 힘으로 자신을 불태운다.³⁾ 사티의 죽음을 전해 들은 쉬바는 분노에 휩싸이고, 죽은 사티의 시체를 어깨에 얹고 세계 파괴의 춤을 추거나 혹은 희생제의에 모인 신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이에 세상의 멸망을 걱정한 신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이 부분에서 각 문헌에 따라 세부 내용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슈누 등이 쉬바의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사티의 신체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사체를 찢어 인도 전역의 곳곳에 떨어지도록 한다. 떨어진 신체 부위를 줍기 위해 쉬바가 파괴의 춤을 멈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신화와 연결되어 그 신체의 일부들이 떨어진 장소들을 성소(pīṭha)라고 여기게 된다. 쉬바가 그의 아내를, 물론 신체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결합하는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후에 탄트라 내에서 Bhairava와 그의 아내가 만나는 장소, 즉 요기와 요기니가 합일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로 재해석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신화를 기초로 pīṭha의 종류와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불교 탄트라 또한 이러한 신화에 더해 어떻게 쉬바와 그의 권속들이 점하고 있었던 성소들을 불교가 장악하게 되는지, 특히 Heruka와 권속들로 화현한 붓다들에 의해서 탈환되고 이 곳들이 숭배되기 시작했는지를 신화를 통해 정착시키는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

3) *Mahābhārata*에서는 Satī가 스스로 죽음에 들어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Kumārasambhāva* 1.21에서 Kālidāsa는 사티가 스스로를 불에 뛰어들어 사멸하는 것으로 노래한다. 21ab: athāvamānena pituḥ prayuktā dakṣasya kanyā bhavapūrvapatnī/ 21cd: satī satī yogavisr̥ṣṭadehā tām janmane śailavadhūṃ prapede.

이다. Davidson(1993)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신화는 *Sarvatathāgatātattvasaṅgraha*, *Trailokyavijayamahākālpārāja*, *Caṅdraguhyatilakatantra*, *Guhyagarbhatattvaniścaya* 등에서 찾을 수 있다⁴⁾. Sugiki가 정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⁵⁾ 쉬바와 그의 권속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잠부의 24개 성소들이 그들의 성적 의례와 비도덕적인 질서로 파괴되어 가자 이에 분노한 붓다는 Vajravārāhi와 합일한 검은 모습에 네 개의 얼굴과 12개의 팔이 달린 Heruka로 화현한다. 이 한 쌍은 다시 각종 남녀 합일의 Samvara 계열 신들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쉬바와 권속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점령하게 된다.

Samvara 계열의 신들이 24개의 성소를 점령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아직 완전하게 깨달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Heruka로 변한 Saṃyaksambuddha가 주하는 메루산으로 가서 가르침을 내려줄 것으로 요청한다. 이에 Saṃvara 문헌의 경전들이 전해진다. 여기에는 초기 삼바라 문헌인 CaSa와 비교해 변형된 pīṭha체계를 전하는 *Ḍākinījāla-saṃvarārṇavatāntra* (*mkha' 'gro ma dra ba sdom pa rgya mtsho'i rgyud*)⁶⁾ 등이 전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밀교적 성소 관련 신화는 불교 외부에서 도입된 개념을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자체적 전통의 권위성을 부여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 탄트라 전통 내에서도 삼바라 전통이 자리 잡는 과정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붓다가 삼바라 계열의 신으로 화현하게 되었을 때, 적을 제압하는 분노와 공격적인 성향을 주특징으로

4) Davidson 1994 p.203; Sugiki 2009 p.526 재인용

5) *Cakrasaṃvaravikurvaṇa*라는 산스크리트명으로 전해지는, Nāropāda에 귀속되는 *Yul nyi bcu bshi'i rgyu mtshan bstan pa*(Otani 4628 124a5-126a4)의 내용을 통해 불교의 pīṭha관련 신화를 정리하고 있다. Sugiki(2009) pp.526-9.

6) Otani TTP 4628 126a3.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노존이라는 형태가 불교 탄트라 안에 정착하는 단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전거 또한 포함하고 있다.

III. Piṭha 종류의 同異

서문에 언급한 것과 같이, 힌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인 문헌적 전거로 살펴보는 데 있어 특히 Śaiva Trika 체계와 Samvara계열 문헌들은 자주 비교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3회 세계 산스크리트 학회에서 Alexis Sanderson과 Ronald Davidson과 같은 학자들은 TaSa가 *Laghusamvaratantra*(LaSa)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원전적인 근거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iṭha 명칭에 대한 공통점이다.

1. 유사점: *Tantrasadbhāva* 16장과 *Cakrasamvaratantra* 제41장

총 28장으로 구성되는 TaSa는 BraYā, *Siddhayogeśvarīmatatantra* (SiYoMa), *Mallinīvijayottara*(MaViUt)와 함께, Mantramārga에 속하는 Vidyāpīṭha에 속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 문헌에 대해서는 NGMCP (Nepalese-Germany Manuscript Cataloguing Project)에 세 종류의 사본이 보고되는데, 이 중 두 가지는 Newari로 쓰인 Palm-leaf 사본이며, 하나는 Devanāgarī로 쓰인 종이 사본이다. Palm-leaf 사본의 경우, 하나는 온전한데 비해 다른 하나는 일부만이 전해진다. 본고의 TaSa 16장 부분의 필자의 편집본에서 A(NGMCP NAK A44-2)라고 지칭되는 것은 palm-leaf 사본이며, B(NGMCP NAK 189-01)는 종이 사본을 말한다. 나머지 하나의 palm-leaf 사본의 경우는 해당 장이 남아 있지 않다. Ded

라고 보고하는 것은 Mark S.G. Dyczkowski의 E-text 형태의 교정본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본 그대로의 필사본(Diplomatic edition)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TaSa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비판 교정본을 만들었다.

제 16장 전체는 77명의 Yoginī들의 특징과 명칭을 설명하는 총 371송으로 이뤄져 있다. 그 종족, 다시 말해 탄생의 근원이 어딘지에 따라 계보를 설정한다. 이중에 pīṭha는 yoginī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⁷⁾ 그 리스트가 열거되는 것은 61송에서부터다.⁸⁾ 여기서 다뤄지는 명칭이 후기 삼바라 전통의 문헌인 *Cakrasamvaratantra*(CaSa) 제41장에서 그대로 발견된다.⁹⁾ CaSa는 *Laghusamvaratantra*, 혹은 *Herukābhidhāna* -

7) pīṭhajā yoginī jñeyā kṣetrajā devatā smṛtāḥ | TaSa 16-50

8) TaSa 16.61-63: NAK A44-2 palm-leaf (A); NAK 188/22 paper (B) : tāsām sthānām pravakṣyāmi śṛṅṣvāyatalocane | kulūtāyām aranyeṣe sindudeṣe nageśvare || 61 || samudrakuṣyā(ṁ) saurāṣṭre pretapuryāṁ himālaye | kaṁcyāṁ lamyākaviṣaye kaliṅge kauśale sthale || 62 || °62cd kaṁcyāṁ] em: kaṁcyo A B Ded, triśaṅkunyāṁ tathā cauḍre kāmarūpe ca mālave | devikoṭṭe sudhārāme godāvaryāṁ taṭe 'rbude || 63 || °63ab triśaṅkunyāṁ] em: triśaṅkuniś A B Ded; triśaṅkunau Sed °63ab cauḍre] em: coḍre A B Ded *14번째 성소를 triśaṅkuni의 여성형 처격으로 교정했지만, 이 명칭과 관련 하여 triśaṅku라는 남성형 명칭이 *Divyāvadāna*에서 발견된다. Sanderson의 교정은 triśaṅkuni의 남성형 처격 변화를 따른다. 하지만 이를 여성형 triśaṅkuni라고 파악한 이유는 본 계승 이후에 68송에서 여성형 처격으로 쓰인 용례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더욱 많은 조사를 필요로 한다.

9) CaSa 41.6-14 Sarnath Edition (p.546) : kulatāyāṁ vivikte ca sindhau ca nagare tathā | suvarṇpadvīpe sauraṣṭre tathā ca gṛhadevatā || 6 || (p.547) pretapuryāṁ himasthāne kāñcyāṁ lampākadeśake | kaliṅge kośale caiva triśakuniroḍṛake tathā || 7 kāmarūpe mālave ca devikoṭṭe rāmeśvare | godāvaryāmarbude coḍḍiyāne jālandhare tathā || 8 pūllīra-malayādīnām kanyā vīrādvayavyāpinī [-yoginī] | tāḥ sarvāḥ kāmarūpiṇyo manovega-nivṛtaye[-pravṛtaye] || 9 (p.548) ṣaḍyoginyaḥ kulatāyāṁ marudeṣe ṣaḍmātārāḥ | sindhudeṣe lāmā ca nagare kulanāyikāḥ || 10 lampā[kā]yāṁ saurāṣṭre ca kuladevatā sthitāḥ | pretapuryāṁ mahākanyā ḍākinī saharūpinī[corr:saharūpī/ni] || 11 himādrau caiva

tantra라고 칭해지는 이것은 초기 Samvaratantra 문헌으로, 제41장은 24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만달라를 건립하는 방식(caturviṃśaty-akṣara-maṇḍala-vinyāsa-vidhi-ṣaṭala)에 관한 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24개의 음절은 24개의 성소 pīṭha들을 지칭한다. 하지만 CaSa 자체에 대한 지리학적인 설명이나 10개 혹은 12개 범주화, 혹은 신체 내부의 nyāsa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사한 pīṭha들을 언급하는 TaSa와 CaSa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1. Tantrasadbhāva와 Cakrasamvaratantra의 pīṭha 비교

	TaSa 16, 61~63		Cakrasamvaratantra 41장			
	명칭	여신	[주석]	명칭	위치(주석)	여신 (^주석)
1	Kulūtā	Ṣaḍyoginīs	[24]	Kulūtā [pīṭhānta]	무릎	ṣaḍyoginīs^
2	Araṇyeśa	Māṭṛs	[23]	Vivikta [=Maru] ¹¹⁾	엄지손가락	[ṣaḍ^]māṭṛs
3	Sindhudeśa	Bhaginīs	[22]	Sindhu	발등	Lāmā^
4	Nageśvara	Kulanāyikās	[21]	Nagara	손가락	Kulanāyikās
5	Samudrakukṣī	Kāpilis	[20]	Suvarṇadvīpa	종아리	-
6	Saurāṣṭra	Gṛhadevatās	[19]	Saurāṣṭra	허벅지	Kuladevatā
7	Pretapurī	Mahākālis	[18]	Gṛhadevatā	항문	* ¹²⁾
8	Himālaya	Rūpinīs	[17]	Pretapurī	성기	Mahākanyā- vajraḍākīnī^
9	Kaṃcī	Ambās	[16]	Himālaya	성기표면	sabālikā
10	Lampāka	Amrtās	[15]	Kāñci	심장	sabālikā

kāñcyāṃ ca kathitā sabālikā iti | pañcālaviṣaye gṛhadevatā kaliṅge ca vratadhāriṇyāḥ
 || 12 piṣitāśānā kośale tu pretapūryāṃ vajraḍākīnyāḥ | sthūleśvare triśakunau
 khaṇḍarohākulodbhavāḥ || 13 pullīramalaye kanakādrau ca caṇḍalakulajāḥ striyāḥ |
 sahasrāṇyevakaviṃśati || 14

10) Cakrasamvara의 비판 교정본은 현재 Bhavabhaṭṭa의 vivṛtti를 포함하는 Sarnath Edition 이 있다.

11	Kaliṅga	Vratadhāriṇī	[14]	Lampāka	목구멍	Kuladevatā
12	Sthala	Cakravākyā	[13]	Kaliṅga	입	Vratadhāriṇī
13	Kauśala	Piśitāśanā	[12]	Kośala	콧등	piśitāśanā
14	Triśaṃkuni	Amaras	[11]	Triśakuni	배	Khaṇḍarohā Vajramaṇḍalanāyikā
15	Odra(Auḍra)	*Nāyikās-S	[10]	Oḍraka	가슴	-yoginī ¹³⁾
16	Kāmarūpa	*Vīranāyikā -S	[9]	Kāmarūpa	겨드랑이	
17	Mālava	-	[8]	Mālava	어깨	
18	Devikoṭa	-	[7]	Devikoṭa	눈	
19	Sudhārama	-	[6]	Rāmeśvara	미간	
20	Godāvarī [-taṭa]	-	[5]	Godāvarī	귀(좌)	
21	Arb[v]uda ¹⁴⁾	-	[4]	Arbuda	뒤통수	
	Jālandhara	Viśālakṣī	[3]	Oḍḍiyāna	귀(우)	
	Oḍḍiyāna	Ḍiṇḍimā	[2]	Jālandhara	정수리	
	Āyodhya(?)	Pūrikāyā	[1]	Pullīramalaya	머리	

- 11) David, B. Gray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가 없고, mgon pa라고 티벳에서 보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Bhavabhaṭṭa本은 해당 계송 뒤에 'Marudeśa'라고 다시 해당 용어를 제시하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Marwar지역 혹은 구자라트의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곳을 지칭한다는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툰의 경우는 이 지역이 히말라야 구릉지대인 현재 히말찰 프라데쉬로서, "잘란다라(Jālandara)의 북쪽에 돌로 된 요니상이 있는 동굴"이라고 보고한다고 설명한다".(p.330) 하지만 산스크리트 해당 계송에서 TaSa의 두 번째 piṭha인 'Araṇyeśa'에 상응하는 의미로서, '따로 떨어진, 외딴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Vivikta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2) CaSa 41.6송에서 ḡrhadevatā라고 표현된 지명이 다시 거주 여신들의 이름으로 뒤바뀌는데, 앞부분에 대한 bhavabhaṭṭa의 주석에서는 처격 형태가 생략된 것이라고 주석된다. 하지만, 계송 12에서는 이 명칭은 pañcālaviṣaya에 주하는 여신의 명칭으로 문헌 내용상의 혼동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주석 또한 다시 이를 장소의 이름으로 주해한다.
- 13) śeṣānyeṣu hi yāvantaḥ śrīherukasya yoginī | śrīherukamahāyogaḥ tasya maṇḍalan-āyikāḥ || CaSa 41.15
- 14) TaSa에서 연결된 piṭha의 종류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CaSa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Jālandhara, Oḍḍiyāna, Āyodhya(?)는 Śakta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네 가지 성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aSa의 계송에서는 장소 명칭 중에 TaSa와 20개 정도의 장소 이름이 일치하고, 그 순서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aSa의 성소별 거주 여신의 종류도 TaSa에서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aSa의 주석인 Bhavabhaṭṭa의 *Cakrasamvaravivṛtti*(CaSaVi)에서는 계송에서 열거하는 성소의 순서를 TaSa에 열거되는 순서와는 반대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Kulatā 등’이라고 하는 것은 piṭha 종류의 마지막에서부터를 지칭하는 것이고, ‘Pullīramalaya 등’의 piṭha를 언급할 때는 이것이 목록의 앞 부분부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해한다.

[붓다는] ‘kulatā에서’[라는 해당 계송 부분] 이하 장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piṭha 등등’이라는 표현으로 지시한 후에, ‘kulatā에서’ 등의 가르침을 섰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작이 śmaśāna(분류)부터’[라는] piṭha의 끝부분[=순서 마지막부터 앞쪽으로 순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설의 의도이다. ‘pullīramalaya 등’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는 ‘piṭha의 앞부분[=앞부터 뒤쪽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¹⁵⁾

이와 함께 계송에서 열거된 순서가 반대임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로서, 여기에 총 24개의 음(puṁ jaṁ oṁ aṁ gāṁ rāṁ deṁ māṁ kāṁ oṁ triṁ koṁ kaṁ laṁ kārṁ hiṁ preṁ grṁ sauṁ suṁ naṁ siṁ maṁ kuṁ)으로 이루어진 만트라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¹⁶⁾ 이는

들에 포함된다. 이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TaSa 16.100에서다.

15) kulatāyāmityādinā sthānānyāha- pīṭhādiśabdenoddiśya kulatāyāmityādinirdeśe kriy- amāne śmaśānādaya eva pīṭhāntā boddhavyāḥ | etaccopadeśārtham | pullīramalayād- iśabdaiḥ pīṭhādayo boddhavyāḥ | CaSa-vivṛtti 41,5-9.

16) iti caturviṁśatirakṣarāṇi mantrabhūtāni gopitāni |CaSaVi.

24개의 성소인 pīṭha 명칭의 첫 글자를 모두 따서 만든 것이다.

초기 대승 불교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성소는 팔대성지를 지칭하지만, 불교 탄트라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성소는 24개라는 정형적인 숫자로 나타난다. 이들이 지리적인 위치로서 자세하게 실제 지역과 연결되는 것은 다소 후대의 일이다.¹⁷⁾ 이 과정에서 pīṭha 종류가 전승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특정 장소를 칭하던 몇몇 장소들에 더불어 학파적인 중요성을 더하기 위해 인도 외의 지역까지도 성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성소 종류의 전승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TaSa 16.66¹⁸⁾에서 Saurāṣṭra의 거주 여신들로 언급되는 Grhadevatā가 불교 탄트라 문헌에서는 성소 중의 하나로 바뀌어 전해진다는 점이다.¹⁹⁾ 이는 샤이바 문헌의 성소들이 불교 문헌에서 24개의 성지로 도입되는 과정에 의도적 혹은, 전승 과정에서 명칭들이 혼용되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7) 이에 관해서는 Sugiki 2009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후기 Samvara 주석문헌, 특히 티벳 저지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불교 탄트라 24개 성지의 지리적 위치는 저자에 따라서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Nāropāda에 귀속되고, 북경 판에 *dPal 'khor lo bde mchog gi rnam par 'phrul pa*(Skt. Cakrasaṃvaravikurvaṇa)라는 제명아래 Marpa에 의해서 티벳역된 문헌인 Yul nyi bcu bshi'i rgyu mthan bstan pa는 제목 그대로 pīṭha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룬다. Sugiki 2009에서 언급하는 지역적 성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네팔불교문헌인 *Svayaṃbhūpurāṇa*에서는 Himālaya는 카일라스를, Nepāla는 카트만두 지역을 지칭한다고 하지만, *Ḍākārnāvatāntra*에서는 다른 지역을 언급한다. Nāropāda는 Nagara를 Lañkāpura 혹은 Kāśmīra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Yoginijālatantra*와 *Hevajratāntra*의 주석 중의 하나인 *Āmnāyamañjarī*에 의하면 이 지역은 Pāṭaliputra를 지칭한다. Suvarṇadvīpa는 일반적으로 스리랑카 지역을 의미하지만, Nāropāda는 중국의 동쪽 지역으로 간주한다.'

18) samudrakukṣya(ṃ) kāmpilyaḥ saurāṣṭre grhadevatāḥ TaSa 16.66cd | °-*kukṣyaṃ*] *em* ; *kukṣya A, B, °kāmpilyaḥ*] *A, kāpilyaḥ B.*

19) 이러한 사실은 Sanderson 1995 p.96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2. 변용: Samvarodaya

CaSa 이후에 편찬된 문헌으로 여겨지는 *Samvarodayatantra*(이하 SaUd)의 경우도 pīṭha의 종류가 찾아지는데 제7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명칭들은 신체의 naḍi와 연결돼 언급된다. SaUd의 특징적인 점은 CaSa에서 열거된 방식과는 반대방향으로 성소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CaSa의 주석에서 설명하는 방식과도 그대로 연결된다. 물론 SaUd에서는 pīṭha 명칭 자체와 그걸 신체에 적용했을 때의 위치를 함께 설명하고 있지만, 신체를 보다 세분화하는 Naḍi의 개념이 CaSa와 그 주석의 내용에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pīṭha별로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 또한 CaSa의 주석과 SaUd 계승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aSa 주석의 저자인 Bhavabhaṭṭa는 늦어도 pīṭha의 개념이 비록 힌두 탄트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차용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 불교 독자적인 방식을 정립한 이후에 이를 주석했으며, 그 당

표 2. *Samvarodayatantra*의 pīṭha

Samvarodayatantra 7장 4-15 ²⁰⁾					
명칭	위치	통로	명칭	위치	통로
Pulliramalaya	머리	손톱-이빨	Kaliṅga	입	직장
Jālaṃdhara	정수리	머리카락-털	Lampāka	목	위
Oḍiyāna	귀(우)	피부와 각질(?)	Kañci	심장	배설물
Arbuda	등	살	Himālaya	회음	음낭
Godāvarī	귀(좌)	근육(힘줄)	Pretādhivāsin	성기	점액
Rāmeśvara	눈썹	뼈	Gṛhadevatā	항문	고름
Devīkoṭa	눈	혈액	Saurāṣṭra	허벅지	혈액
Mālava	어깨	심장	Suvarṇa-dvīpa	종아리	땀
Kāmaru[pa]	겨드랑이	눈	Nagara	발가락	지방
Auḍra(Oḍra)	가슴	담즙	Sindhu	발등	눈물
Triśakuni	배	폐	Maru	엄지(손)	담즙
Kosala	코트등	창자	Kulata	무릎	코트물

시에 SaUd와 같은 정전적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편찬문헌들이 함께 공존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IV. Pīṭha의 재해석; 범주화

힌두 탄트라에서 pīṭha라는 용어는 힌두 탄트라 문헌에서 요기와 요기니의 결합을 위한 장소라는 내포적인 의미를 지니고 언급된다. *Tantrāloka*(TĀ)의 Jayaratha 주석 4.259에서는 pīṭha와 같이 신의 거주처를 지칭하는 용어를 범주화 하는데, 요기와 요기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Kṣetra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Kāmarūpa 등 지역을 pīṭha, Devikoṭṭa 등의 지역을 upapīṭha라고 주석한다.²¹⁾ 힌두 탄트라, 좁은 범위로는 Śaiva Trika체계의 TaSa와 TĀ에서 여러 성스러운 장소를 집합적

20) *Samvarodayatantra* 7, 4–15 : Tsuda Ed, (p.94) pullīramalaye śīrasi nakhadantvavahā sthitā | jālampharaśikhāsthāne keśaromasamāvahā || 4 oḍiyāne dakṣiṇe karṇe nāḍi tvañmalavāhinī | arbude pṛṣṭhavaṃṣe tu nāḍi piśitavāhinī || 5 godāvarivāmakarṇe nāḍi snāyuvāhinī | rāmeśvare bhruvo madhye asthi vahati sarvadā || 6 devikoṭe sthitā cakṣau nāḍi bukkavāhinī | mālave skandhadvayasthāne nāḍi hrdayavāhinī || 7 kāmarukakṣayoḥ sthāne cakṣur vahati sarvadā | auḍre stanayugale nāḍi pittavahā sadā || 8 nābhau trīśakunisamsthāne nāḍi phupphusāvahā | kosale nāsikāgre tu antramālavahā sthitā || 9 mukhasthāne kaliṅge tu gudavartiḥ sadā sthitā | laṃpāke kaṅṭhadeśe tu nāḍy udaravahā sadā || 10 kañcīhrdayasthāne tu nāḍi viḍvāhinī | himālaye meḍhrasthāne nāḍi śimāntamadyagā || 11 pretādhivāsiniḥ nāḍi śileśmavāhinī |(p.95) grhadevatāgudasthāne sāmānyam pūyavāhinī || 12 saurāṣṭra ūruyugale śoṇitājñ ca sadā vahā | suvarṇadvīpe jaṃghasthāne nāḍi prasvedavāhinī || 13 nagare pādāṃgulau jñeyā nāḍi medavahā sadā | sindhau pādapṛṣṭhasthāne aśru vahati rūpiṇī || 14 marāv aṅguṣṭhayoḥ sthāne kheṭam vahati sarvadā | kulatājānudvayoh sthitvā bālasimhānavāhinī || 15

21) “kṣetram” melāpasthānam, “pīṭham” kāmarūpādi “upapīṭham” devikoṭṭādi | TĀ 4.259

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pīṭha/upapīṭha와 kṣetra/upakṣetra로, 집합적 의미(samāhāra)로 표현될 때 쓰이는 san(m)doha²²⁾라는 용어 정도가 발견되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푸라나와 탄트라 문헌에서 다루지는 Piṭha는 일반적으로 장소,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맥상에서는 보통 신체 부위, 거주 여신, 그 여신을 대표하는 종자만트라(Bija) 등을 동반하여 설명된다. 이는 이와 동일한 리스트를 열거하는 불교 탄트라 문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부분을 점하는 장소라는 맥락에서 Piṭha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것은 지리학적인 위치를 점거하는 한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신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여신 자체의 신체 일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탄트라 의례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는 소우주화된 의례화의 상징물인 만다라 등의 한 부분을 지칭하기도 하고, 수행자 본인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내재된 우주 원리를 지니고 있는 기저가 된다는 의미에서 수행자 자신의 신체 부분, 특히 나디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될 수도 있다.

Sugiki는 삼바라(Saṃvara) 문헌에서 다루는 Piṭha의 성격을 두 가지 단계와 세 가지 세부 범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수행적인 단계의 pīṭha와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다루지는 pīṭha의 단계이다. 이 수행적인 측면은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다루볼 수 있다고 분류하는데, 먼저 지리학적인 특징으로 설명되는 특정 지역으로서 pīṭha와 의례 안에서 물질적으로 건립되거나 그려지는 만달라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외적 수행의 pīṭha, 그리고 수행자 신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안치하

22) sandoha라는 지명이 불교 탄트라의 성소 분류인 chandoha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힌두 탄트라 문헌 내의 불규칙 산지 법칙이 전승 중에 불교 탄트라 문헌 안에 정착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의 용어로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내적 수행의 pīṭha로 나누어 본다.

이런 총체적인 분류 중에서 내적 수행의 pīṭha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해설과 개념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삼바라 전통 이전부터 pīṭha의 명칭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불교 탄트라식의 관점을 적용한 흔적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1. 독자적 분류법: Hevajratantra

Śaiva의 pīṭha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Samvaratantra 문헌 이전에 pīṭha에 대해서 유사한 체계를 언급하는 문헌으로 *Hevajra-tantra*(이하 HeTa)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이후 삼바라 계열의 설명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pīṭha의 리스트가 열거되고 있는 것은 7장 Chomāpaṭala에서다. 1송에서 11송에 걸쳐 요기와 요기니가 서로를 구별하는 비밀 신표인 Chomā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pīṭha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종족 구별 이후에 동족의 모임의 장소로서 언급되는 범주는 열두 가지이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23) HeTa 1,7장: Mss. Kataoka A48(A); 두개의 교정본은 Snellgrove(Sed)과 Farrow & Menon(F&Med) 참조: Vajragarbha uvāca | he bhagavan ke melāpakasthānāḥ | bhag-avānāha | pīṭhaṃ copapīṭhāḥ ca kṣetropakṣetram eva ca | chandohaṅ copacchandoḥaṃ melāpakomelāpakas tathā | pīlavāṃ copapīlavāṃ [°Mss; +caiva] śmaśanopaśmaśānakam || 10 || etā dvādaśabhūmayāḥ [°+MuVa bhavanti asyām; YoRaMā bhavanti āsu] | daśabhūmīśvaro nātha [°S ed, F&M ed; Mss A daśabhūmīśvaranāthaṅ] ebhir anyair na kathyate || 11 || vajragarbha uvāca | he bhagavan ke te pīṭhādayāḥ | bhagavān āha | pīṭhaṃ jālandharam khyātam oḍḍiyānaṃ tathaiva ca | pīṭhaṃ paurṇagiris <Mss A paullagiri> caiva kāmarūpas° <em; Sed, F&Med kāmarūpan> tathaiva ca || 12 || upapīṭhaṃ mālavaṃ proktaṃ sindur nagaram eva ca | kṣetraṃ mummuni<°em Mss A, MuVa, YoRaMā; munmuni Sed, F&Med> prakhyātaṃ kṣetraṃ kārunyapāṭakam | devikoṭaṃ tathā kṣetraṃ kestraṃ karmārapāṭakam || 13 || upakṣetraṃ kulutā proktaṃ arbudaś ca tathaiva ca | goḍāvarī himādriś ca upakṣetraṃ hi [°Mss A ca]

표 3. Hevajatantra의 pīṭha 설명

	분류	장소	MuVa의 해석	YoRaMā의 해석
1	Pīṭha	Jālandhara, Oḍḍyāna, Paurṇagiri, ²⁴⁾ Kāmarūpa	Adhimukticaryā -bhūmi	(pra)Muditā
2	Upapīṭha	Mālava, Sindhu nagara ²⁵⁾	Pramuditā	Vimalā
3	Kṣetra	Mummuni, Kāruṇyapātaka, Devikoṭa, Karmārapātaka	Vimalā	Arciṣmatī
4	Upakṣetra	Kulatā, Arbuda, Goḍāvari, Himādri ²⁶⁾	Prabhākari	Prabhākari
5	Chandoha	Harikela(=Lavaṇa대양 중간위치) ²⁷⁾ , Lampāka, Kāñcika, Saurāṣṭra.	Arciṣmatī	Sudurjayā
6	Upachandoha	Kaliṅga, Cāmīkarā-dvīpa, ²⁸⁾ Kokaṇa	Abhimukhī	Abhimukhī
7	Melāpaka	-	Sudurjayā	Dūraṅgamā
8	Upāmelāpaka	-	Dūraṅgamā	Acalā
9	Pīlava	마을 근처, 도시 근처, Caitra, Kośala, Vindhya, Kaumārapūrakā	Acalā	Sādhumatī
10	Upapīlava	pīlava지역 안.	Sādhumatī	Dharmameghā
11	Śmaśāna	죽은이들이 모이는 지역, 강(바다)둑,	Dharmameghā	Samantabhadrā
12	Upaśmaśāna	우물, 연못(호수)의 기슭	Jñānabhūmī	nirupamā +Jñānavatī ²⁹⁾

saṃkṣipt | 14 | chandohaṃ harikelam [°Mss A; ca 생략] lavaṇasāgaramadhyajaṃ [°Mss A -gatī] | lampākam kāñcikaṃ caiva saurāṣṭraṃ ca tathaiva ca | 15 | kaliṅgaṃ upachandohaṃ dvīpaṃ cāmīkarānvitam | kokaṇaṃ copachandohaṃ samāsenābhidhiyate | 16 | pīlavaṃ [°ca] grāmāntaṣṭham pīlavaṃ nagarasya ca | caitraṃ kośalaṃ caiva vindhyākaumārapaurikā | upapīlavaṃ tatsanniveśaṃ vajragarba mahākṛpa | 17 | śmaśānaṃ pretasāṃhātām śmaśānaṃ codadhes [°Mss A caudadhes] taṭam | udyānaṃ vāpikāṭīram upaśmaśānaṃ ucyaṭe | 18 |

24) Paurṇagiri] S Skt ed, F&M ed; Mss A와 YoRaMā의 경우, Pollagiri라고 적고 있다. 이와 더불어 YoRaMā는 이곳이 Pullīramalaya를 지칭한다고 주석한다.

HeTa의 주석인 *Muktāvalī*의 저자 Ratnākaraśānti는 이 열두 가지 지역은 보살의 십지(*daśabhūmi*)에 해당하는 보살들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의 보살과 붓다가 거주하는 곳이라 주석하고, 승해행지(勝解行地)를 첫 번째 범주에, 그리고 십지단계, 마지막으로 *Jñānabhūmī*를 넣어 총 12가지 지역(*pīṭhādi*)를 설명한다. 또 다른 주석인 *Kāñha*의 *Yogaratanmālā*도 *pīṭhādi*의 열두 장소들이 보살의 십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약간 다르고, 십지의 순서도 발광지(發光地 *prabhākari*)와 염혜지(焰慧地 *arciṣmatī*)가 뒤바뀌어 있다. 여기에서 위에서 살펴봤던 CaSa와는 달리, 24개의 성소 개념이 강조되기 보다는 여러 장소들에 관한 범주가 어떻게 보살의 단계와 연결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삼바라 문헌 중 하나인 *Ḍākārṇavatāntra*에서도 *pīṭha*를 HeVa에서 언급하는 종류로써 분류하는데, 분류법의 마지막에 오는 *Pīlava/Upapīlava*와 *Śmaśāna/Upaśma*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³⁰⁾ 불교 탄트라 전승 안에

25) MuVa: Pāṭaliputra라를 지칭한다고 주석.

26) Snellgrove 교정본의 경우, *hi mādri*라고 읽음; F&M의 경우는 *himādri*. 다른 문헌의 *pīṭha*와 비교하여 *Himālaya*의 이명인 *Himādri*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27) *Harikela*는 *Lavaṇasāgara*에서 있는 것으로 주석; *harikelasya viśeṣaṇaṃ lavaṇetyādi* | MuVa 7.15

28) MuVa, YoRaMā: *Cāmikarānṅvita*는 *Suvarṇadvīpa*를 지칭한다고 주석.

29) YoRaMā는 열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drayodaśabhūmis tu* [Tib, *Vajradharabhūmir* 추가] *apraṭiṣṭhitanirvāṇadhātūrūpā teneha nocyate* | Snellgrove 1994, p.122

30) *Ḍākārṇava* 14장 Mss Takaoka DH 119(C), Sugiki Ed. 2009 (Kathamandu D40/6 (=A), 31b7-32a2, Kathmandu A142/2 (=B) 34a6-b1) ; *atha pīṭhopapīṭhādi yathākramāṇi ca āha* | °-*papīṭhādi* ed] *papīṭhādiṃ* B pīṭhaṃ pūrṇagiriś caiva jālandharam oḍyāyanam || °*oḍyāyanam*] *oḍyāyana* B; *arbudaś ca tathā pīṭhaṃ godāvaryopapīṭhakam* | °*arbudaś* ed] *arbudaṃ* B ; *pīṭhaṃ*] *pīṭha* A. *rāmeśvara-devikoṭaṃ mālavaṃ copapīṭhakam* || °-*devikoṭaṃ*] *devikoṭa* A *kāmarūpaṃ tathā oḍraṃ triśakuni-kausalakam*

서도 각 전통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였을지 전승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류법의 정통성이 확립되어 계속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4. *Ḍākārṇavatāntra*의 pīṭha 분류

<i>Ḍākārṇavatāntra</i> 14장	
Piṭha	Pūrṇagiri, Jālandhara, Oḍḍāyana, Arbuda
Upapiṭha	Godāvārī, Rāmeśvara, Devīkoṭa, Mālava
Kṣetra	Kāmarūpa, Oḍra, Triśakuni, Kausalaka(=kosala)

| °*triśakuni-*] *triśakuna_A, C triśaku* B* kṣetraṃ kāliṅgopakṣetraṃ lampākam kāñci [i]-himālayam || °-*himālayam*] -*himālaya_B* pretapūrī ḡrhadevī saurāṣṭraṃ suvarṇadvīpakam | °*saurāṣṭraṃ*] *saurāṣṭre_B* chandoḥaṅ copapacchandoḥaṅ nagaraṃ sindhumarukaṃ || °*marukaṃ*] → *murukaṃ B, C* kulutā copacchandoḥaṅ naditīraṃ melāpakam | °*kulutā*] *kulitā A, B* : °*naditīraṃ*] *naditīla B*, udyānaṃ sāgaraṃ proktaṃ catuṣpathaṃ copamelakaṃ || °*proktaṃ*] *proktā B*, : °-*pathaṃ*] *patheś A* ; *copamelakam*] *copamelakāḥ A* girimūrdhni grāmamadhyaṃ vṛndakaumāriparvatam | °*vṛnda-*] *vṛndā A*, : °-*parvatam*] *parvakaṃ A*, kulakṣetropamelakaṃ śmaśānaṃ munmuni[=ni] yataḥ || caritraṃ harikelam ca [=ñca] māyāpūrī śmaśānakaṃ | °*harikelam*] *harikelaś A* ; °*māyāpurī*] *māyāpuri A*, upaśmaśānaṃ parvatāntaṃ sannakheṭaṃ surapuram || °*sannakheṭaṃ*] *sngags kyi shing Tib.* ; *surapuram*] *suraḥ puraṃ A., surrapuraṃ B.* °*parvvatā-*] 사본 4/ 자음중복현상 *karṇātapāṭakaṃ caiva [=ñcaiva] pīlavam tu nigadyate | °*karṇātapāṭakaṃ*] *karṇātapāṭakaś A., karṇātapāṭakaṃ B.* grāmāntaṃ kuṅkaraṃ caiva karmārapāṭakaṃ vibhuḥ || °*kuṅkaraṃ*] *kukaraś A., kong ka na nyid Tib.* yoginīghanapurīṣam upapīlavam tathātra ca | °-*purīṣam*] *pāriṣaṃ A., pāriṣthaṃ B., grong Tib* ; *upapīlavam*] *upapīla B*, pītṭvānaṃ ḡrhapārśvaṃ taḍḍagaṃ puṣkarīva tu || °-*pārśvaṃ*] *pāsve ca B.* ; °*taḍḍagaṃ*] *taḍḍakaṃ A., taḍḍaga B.* ; *puṣkarīva*] *puskaraṇīva A.* eṣu sthāneṣu yā kanyā sahaajā ca svayonijāḥ | °*yonijāḥ*] *yonikā B.* °*TaSa eṣa deṣeṣu yāḥ kanyāstriyo vā klinnayonayaḥ 16.63cd* deṣe deṣe vijānīyāḥ jñānayuktādvayasthitāḥ || °*vijānīyāḥ*] *vijānīyā A, B.* ; °-*dvaya-*] *dvayā B.* dvādaśānaṃ tu cakrāṇāṃ śarabhedena tu pīṭhajāḥ | °*cakrāṇāṃ*] *cakrāṇā B.* ; -*bhedena*] *bhedenaṃ B.* ; dvādaśapīṭhādayaḥ proktā[-ktāḥ] ṣaṭtriṃśad-hātukāraṇāt | °*pīṭhādayaḥ*] *pīṭhādayeḥ A.* ; *ṣaṭtriṃśad-*] *khaṭtriṃśa- A.* *ṣaṭtriṃśa- B.**

Upakṣetra	Kāliṅga, Lampāka, Kāñci, Himālaya
Chandoha	Pretapūrī, Gṛhadevī, Saurāṣṭra, Suvarṇadvīpa
Upachandoha	Nagara, Sindhu, Maruka, Kulutā
Melapaka	강둑, Udyāna(정원), Sāgara(바다), Catuṣpatha(교차로)
Upamelapaka	Girimūrdhini, Grāma-madhya, Vṛnda-kaumāri-parvata, kulakṣetra. ³¹⁾
Śmaśāna	Munmuni, Carita, Harikela, Māyāpūrī
Upaśmaśāna	Parvatānta, Sannakheṣa, Surapura, ³²⁾ Karṇāṭapāṭaka
Pilava	Grāmānta, Kuñkara, Karmārapāṭaka, Yoginīghanapurīṣa ³³⁾
Upapilava	Pitṛvana, Gṛhapārśva, Taḍāga, Puṣkarīva. ³⁴⁾

2. 지속적 상호 영향 : ajraḍkatantra

힌두 탄트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pīṭha의 수는 4개 혹은 8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지만, 등장하는 지역 혹은 고유 명사는 여기서 다루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TaS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샤이바 Kaula 문헌 중의 하나로서 *kubjikāmatatantra*(이하 KuMa)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문헌에는 TaSa의 계승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 Trika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여겨진다. 하지만, KuMa안에서 다루는 pīṭha의 종류는 그 종류도 많고 TaSa와 다른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봤던 TaSa(표1)의 내용들과는 별개의 일련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31) Upamelaka의 범주에 속한 지역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산의 정상’, ‘마을의 한가운데’, ‘치녀 집단이 모여 사는 산악지역’, ‘자신의 가문이 속하는 땅’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Upaśmaśāna의 세 가지 지역 또한, ‘산 아래’, ‘죽은 마을’, ‘신들의 거주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Pilava 지역 중 첫 번째 것은 ‘마을 밖’, 마지막 지역은 ‘요기니가 몰려 있는 곳’으로 해석 가능.

34) Upapilava 종류는 ‘선조의 숲’, ‘집 옆’, ‘호수’, ‘푸른 연꽃이 있는 연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KuMa의 pīṭha 종류가 이 문헌 자체가 지닌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들이 Trika 체계의 총체적인 사상을 다양한 문헌적 전거로 설명하고 있는 *Tantrāloka*(TĀ) 29장 59-63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TĀ의 주석을 작성한 Jayaratha는 그 이름들을 분명히 수행자의 신체에 배대(nyāsa)하는 내적 pīṭha의 개념으로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힌두 탄트라 자체 내에서도 더욱 심도 깊게 다뤄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샤이바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동일한 체계가 또한 불교 탄트라, 삼바라 계열 *Vajradākatantra* 속에서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헌은 후기 삼바라 문헌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전 문헌들에서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이름들을 새롭게 열거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힌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의 개념 공유는 단발적이거나 일정한 시기에만 일어났다고 추정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ubjikamatatantra 22, 23-46 ³⁵⁾	Tantrāloka 29, 53-63 ³⁶⁾	Vajradākatantra ³⁷⁾
Aṭṭahāsa*	Aṭṭahāsa	Aṭṭahāsa
Caritrā*	Caritra	Kollagiri
Kolāgiri*	Kulagiri	-
Jayantī*	Jayantika	Dharaṇī
Ujjayinī	Ujjayinī	Devikoṣa
Prayāga*	Prayāga	Virajā
Vārāṇasī*	Vārāṇasī	Pura
Śrikoṣa	Srīpīṭha/ Viraja	Elāpura
Virajā	Eṣābhī/Eḍābhī	Kāsmira
Airuḍī	Hālā[=Alipura]	Maru
Hastināpura	Gośruti	Nagara
Elāpura	Marukośa	Paunḍravardhana
Kāśmarī	Nagara	Jayantī

Maru	Pauṇḍravardhana	Pr̥ṣṭhāpura
Nagara	Elāpura	Sopāra
Puṇḍravardhana	Purastrīra	Caritra
Parastrīra*	Kuḍyākeśī	Oḍyāyana
Pr̥ṣṭhāpura*	Sopāna	Jālandhara
Kuhudī*	Māyāpū[ra]	Kṣīrika
Sopāra*	Kṣīraka	Māyāpura
Kṣīrika*	Āmrāta	Āmraka
Māyāpurī*	Nṛpasadmanī	Rājagṛha
Āmrātikeśvara*	Varīñcī	Bhoṭa
Rājagṛha	Kālāgni	Mālava

V. 맺는 말

본고는 힌두 탄트라와 후기 Vajrayāna 문헌에서 발견되는 pīṭha의 명칭에 대한 상이점을 통해 두 사상이 무엇을 공유하고 또한 각자에 맞게 어떻게 성소 종류를 변용시켜 갔는지를 문헌을 통해 그 전승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Śaiva Trika의 중요 문헌인 *Tantrasadbhāva*의 pīṭha 종류를 이와 유사한 체계를 불교 삼바라 문헌에서 추적해 보았다. 이와 함께, 다른 불교 탄트라 문헌 안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유사 명칭들이 재해석되는 과정을 함께 다뤄보고자 했다. 또한 후기 kaula/Śakta 전통의 문헌에서 새롭게 각색되는 pīṭha의 명칭들이 또 다시 불교 탄트라의 문헌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표를 통해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아직 미개척 분야 중의 하나인 힌두 탄트라 문

35) *Kubjikāmatatantra*, Skt. Edition Goudriaan and Schoterman 1998; 125–126. Sugiki 2003a: (66)

36) *Tantrāloka* 제 29장. : Edition John R. Dupuche: Abhinavagupta

37) *Vajradākatantra* Skt. Edition Sugiki 2003a(65), 2009(67).

헌을 비판 교정함으로써 원전 자료의 조사와 발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예증을 통한 상호 관계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 주제들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는 흥미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일 혹은 유사 개념들이 각 사상에 맞게 수용, 해석되는 일련의 과정을 piṭha의 종류와 분류라는 주제로 압축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논의한 각 문헌들이 접하는 사상사적, 문헌학적 위치는 더욱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Piṭha에 대한 힌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여기서 언급한 문헌 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그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논의된 문헌들 자체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비판 교정본만으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맥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호 및 참고문헌

1차 문헌 : 사본과 비판 교정본

CaSa: *Cakrasamvaratantra*, (= *Cakrasaṃvaramahāyoginītantrarāja*, *Tantraśrīlaghusaṃvaratantra*, *Herukābhīdhānatantra*: Skt ed; Sarnatha Edition Janardan Shastri Pandey, *Cakrasaṃvaratantram with Vivṛtti Commentary of Bhavabhaṭṭa*, 2002, Skt mss: Oriental institute Baroda, acc. no. 13290 (palm leaf)

CaSaVi: Bhavabhaṭṭa의 *Cakrasamvaratantravivṛtti* : Sarnatha Edition;

- Cakrasaṃvaratantram durlabha bauddha granthamāla* 26 Vol. I, II,
 DāĀr: *Dākārṇavamahāyoginītantrarāja*, Skt mss: NAK, reel no. D40/ 6(paper),
 no. A 142/2 (paper), no. B113/3 (paper)
 HeTa: *Hevajrat Tantra*, Skt ed, Snellgrove ., Farrow and Menson
 KuMa: *Kubjikamatatantra*, Skt ed: T. Goudriaan and J.A. Schoterman
 1998, *The Kubjikāmatatantra, Kulālikāmnāya Version*, Orientalia Rheno
 Traiectina XXX,
 SaUd: *Samvarodaya* : Skt ed: Shin'ichi Tsuda, *The Saṃvarodayatantra-
 selected chapters*, The Hokuseido Press, 1974, Tokyo
 TaSa: *Tantrasadbhāva* ; NGMCP NAK 44-2 palm-leaf (Mss A), NAK
 189-01 Paper (Mss B)
 TĀ: *Tantrāloka*, Skt ed, *Tantrāloka with Commentary by Rājānaka Jay-
 aratha*, edited with notes by Māhāmahopādhyāya paṇḍit mukund
 Rām shāstrī, Kasmir Series of Texts and Studies Series.

2차 문헌 : 출판물과 논문

- Davidson, Ronald M. (2002). *Indian Esoteric Buddhism; A Social History
 of the Tantric Move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David B. Gray. (2007). *The Cakrasamvara Tantra (The Discourse of Śrī
 Heruka)* ; A Study and Annotated Translation.
 Dupuche, John R. (2003). *Abhinavagupta: The Kula Ritual as Elaborated
 in Chapter 29 of the Tantrāloka*, Motilal Banarsidass, Delhi.
 Goudriaan, T. and Schoterman, J.A. (1998). *The Kubjikāmatatantra,
 Kulālikāmnāya Version*, Orientalia Rheno-Traiectina, XXX.
 Hatley, Shaman. (2007). *The Brahmāyāmalatantra and Early Śaiva Cult
 of Yoginīs*, a dissertation in Religious Studies, presented to the

Faculties of the Universtiy of Pennsylvania in Partial Ful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Sanderson, Alexis. (1995). “*Vajrayāna: Origin and Function*” Buddhsit into the year 2000, Dhammakaya Foundation.

Sanderson, Alexis. (2001). “*History throught Textual Criticism in the Study of Śaivism, the Pañcarātra and the Buddhist Yoginītantras*” Les Sources et le temps, Sources and Time; A colloquium, Pondicherry, 11–13 January 1997.

Sircar, D.C. (1973). *The Śākta Piṭhas*, Motilal Banarsidass, Delhi.

Snellgrove, David L. (1959). *The Hevajra Tantra: A Critical Study*, Part I,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Part II, Sanskrit and Tibetan Text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Sugiki, Tsunehiko. (2002). “*A Critical Study of the Vajraḍākamahātantarāja (I) Chapter. 1 and 42*”, Journal of Chizan Studies (Chizan gakuho) 51, Association of Chizan Studies, pp. 81–115.

Sugiki, Tsunehiko. (2003a). “*A Critical Study of the Vajraḍākamahātantarāja (II) – Sacred Districts and Practices Concerned*”, Journal of Chizan Studies (Chian gakuho) 52, Association of Chizan Studies, pp. 53–106.

Sugiki, Tsunehiko. (2009). “*The Structure and Traditions of the System of Holy Sites in Buddhist Saṃvara Cycle and its Related Scriptural Cycles in Early Medieval South Asia*”, Genesis and Development of Tantrism, pp. 515–562.

Abstract

The System of Pīṭha in Hindu Tantra and its transformation into Vajrayāna Literature.

Bang, Jung-Lan

Dongguk University

The main academic aim of this paper is that the attempt to trace the evidence that Hindu tantra and Vajrayāna literature share the system and notion of sacred places, pīṭhas, especially through the textual comparison and editing texts. As several great scholars pointed out, one of the valuable sources which can be found more earlier original list of pīṭhas in Vajrayāna literature is the Hindu tantric text, *the Tantrasadbhāva*(hereafter TaSa), belongs to Śaiva Trika.

The 16th chapter of the TaSa explains the list of sacred places Pīṭhas, where yoginīs abide and assemble or in further, a practitioner should be consider a certain part of body as a divine part.

First of all, the notion of Pīṭha is related to the famous Dakṣa myth in Pūrāṇa literature such a *Mahābhārata*, even from *the Śatapathabrāhmaṇa* to the kāvyā *Kumārasambhāva* and so on. The story is briefly that Śiva and

his wife Saṭī was insulted by her father Dakṣa, not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 Then, Saṭī was exasperated and burned herself by yogic power. Having heard his wife's dead, Siva becomes furious and killed deities being in Sacrifice including Dakṣa. And he started to dance to destroy the Universe with putting her body on his shoulder. In order to stop him, Viṣṇu entered into the dead body of Saṭī and spilt bit by bit into parts. It aimed to stop the destruction of Universe by Śiva. The places where pieces of Saṭī's dead body fell are said to have become Pīṭhas. Therefore, holy seats are regarded as female goddess's abode and the place for union of yogins and yoginīs as if Śiva and Saṭī met again.

In Vajrayāna literature, the myth is transformed and superimposed by buddhist own episode. The story summarized that twenty four pīṭhas stayed by Śiva and his retainers are captured by Buddhist saṃvara deities who are transformed from Samyaksambuddha in order to purify those place from the depravity. This is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Pīṭha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Vajrayāna.

We interestingly can find almost corresponding name of TaSa's Pīṭhas in Vajrayāna literature, the Cakrasamvaratantra(hearafter CaSa). The 41st chapter of CaSa is named 'Caturviṃśaty-akṣara-maṇḍala-vinyāsa-vidhi-pāṭala'. CaSa, the earliest text of Saṃvara cycle, has a similar pīṭhas order to TaSa. But later texts of Saṃvara like the Saṃvarodayatantra(SaUd) show the reversed order of CaSa's list of Pīṭha. Moreover, the Hevajatantra and its commentaries also attest similar pīṭha categories with Śaiva literature, but interpret them as dwelling places of Bodhisattvas including the daśābhūmi system.

Through these examination through the comparison lists of pīthas in Hindu tantras and similar lists of it in Saṃvara Literature, I would like to shed a light on providing new materials for Tantric studies and evoking the interest of related topics.

Key Words: Pīṭha, Tantrasadbhāva, Śaiva, Saṃvara literature, Sanskrit manuscript, critical edition, philology

2011년 5월 31일 투고

2011년 6월 20일 심사완료

2011년 6월 21일 게재확정